

## 2006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모색의 한 단계

김병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06년의 사업과 정책적 방향은 예술위원회와 문예진흥원의 합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도 견제가 아니라 상용의 형태로 공동 작업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29일에 예술위원회로 전환 출범했으며, 2006년도의 예산은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의해 이미 2005년 5월에 책정되었고, 그 예산을 구성할 정책 수립은 2005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6년의 정책 수립에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가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는 2005년 8월 29일에 예술위원회로 전환 출범했으며, 2006년도의 예산은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 의해 이미 2005년 5월에 책정되었고, 그 예산을 구성할 정책 수립은 2005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술위원회의 이름으로 2006년의 정책과 그 방향을 설명해도 좋을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예술위원회로 개편되었음에도 그 전환이 승계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에 비록 문예진흥원 체제가 수립했다고 하지만 그 골격은 예술위원회에 고스란히 수용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문예진흥원이 30여 년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담당해오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왔기에 예술위원회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돌연한 변화를 가질 수 없다는, 오히려 적극 수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6년의 사업과 정책적 방향은 예술위원회와 문예진흥원의 합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도 견제가 아니라 상용(相容)의 형태로 공동 작업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2006년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

2006년의 사업 정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매개 기능의 강조이다. 이전의 기금운용계획은 창작-향수-예술보존-국제교류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지만, 2006년의 그것은 창작-향수-매개-지역문화-국제교류의 5항목으로 정리되면서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확대'를 독립시켰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70억 원을 증액했다. 그 증액은 '무대 예술인 재교육 지원' '예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예술매개활동 기반 조성' 등에 투입된다. 인·사·미술공간의 프로젝트와 가령 창작 분야에서의 지원 사업 중에 출판 잡지로 적용될 예산을 합치면 매개 역할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운용계획안의 170억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지원 사업은 창작과 향수의 두 분야로 집중되면서 정작 그 둘 사이를 매개할 각종의 미디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왔다. 그러나 뛰어난 창작도, 향수 집단의 문화적 욕구도 문화공간과 예술 행정 인력, 예술 교육과 각양의 프로그램, 출판사와 잡지사의 중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이 점점 더 분

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문화 예술 교육과를 신설하게 된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하듯 문예회관을 설립하고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런 인식의 표현이거니와 우리 예술위원회도 미디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창작과 향수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지향일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 확대에 지속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은 2004년부터 일어난 '정부 내부 수입(로또 수입)'이 문화복지의 방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시된 사업 항목이지만, 2006년에는 그 정책 방향이 조금 변화하고 있음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방에서의 '문화예술 체험지원'과 같은 사업은 다른 항목 또는 다른 주체(지역 문화재단)로 이관되는 대신 '소외지역 공동체 문화 환경 조성',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에 대폭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소외 지역과 소외 집단에 대한 문화 접촉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복지는 일반 사람들보다 경제적, 지역적, 직업적, 육체적 소외 계층과 집단의 문화 향수권 보장에서 참된 의미를 가질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 정책적 전환은 복지 사회를 위해 마땅한 선택일 것이다.

우리의 사업 계획에서 종래의 소액 다건주의를 지양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세우게 된 것도 진일보한 정책일 것이다. 기왕의 문예 지원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사업에 조금씩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길어낸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런 단계는 벗어나야 했다. 우리의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고 지원받을 대상이 개인에서 단체로, 그래서 소액이 아닌 다액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공연 단체를 육성해야 할 수준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규모가 달라졌다. 지원 전략의 이런 변화는 예술계에서만 아니라 각계의 지도층도 함께 권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2006년에 10억의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과 15억의 '공연예술 창작 전문단체 집중 육성'에서 시험적으로 시도하여 그 효과에 따라 집고시킬 예정이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에 적용될 이 두 가지의 집중적인 투자는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과 집중은 선정자가 소수이고 탈락자가 다수이며 지원 액수가 고액이어서 심의에 대한 불평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은 대담하게 채택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부수되는 또 하나의 정책이 단년 예산에서 다년 예산으로의 개혁이다. 가령 '공연예술 창작전문단체 집중 육성'은 공연예술단체 15개에 1억씩 지원하되 그 지원을 3년간 연속하도록 구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1년에 결산하는 종래의 경직된 예산 편성에서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단년성이 야기하는 경직성은 오래 전부터 특히 예술 지원에서 그 문제성이 제기되었거니와 다년에 걸친, 혹은 엄격한 기일을 벗어나 유연하게 예·결산하도록 하는 방

2006년의 사업 정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매개 기능의 강조이다. 이전의 기금운용계획은 창작-향수-예술보존-국제교류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지만, 2006년의 그것은 창작-향수-매개-지역문화-국제교류의 5항목으로 정리되면서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확대'를 독립시켰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70억 원을 증액했다.

식은 종래의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탈피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원의 이러한 유연성은 예술의 활동을 결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결산을 예술 활동에 맞추는 태도의 혁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창작-매개-향수의 여러 분야에 파급적인 효과를 유발할 사업을 발굴 수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가령 올해의 우수문학도서 구입은 문학의 향수충을 위한 좋은 문학 작품들의 배포이지만, 그 도서 구매는 매개체인 출판사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작가에게는 이에 따른 인세 지원을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 사랑 티켓은 향수충을 지원하면서 관객 증가로 창작 공연 단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유발한다. 이런 시너지 효과의 유발이 지원 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작업일 것이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이런 복합 효과 유발 사업의 개발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제는 시효가 지난 사업과 반대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업을 가려내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사업과 사업 사이의 틈새를 메꾸는 작업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 2006년은 새로운 정책 수립 위한 모색 단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전환하여 예술위원회로 새로

이 발족한 지 이제 넉 달 남짓 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는다. 그러니까 예술위원회는 갓 출발하는 셈이고 그것도 제로베이스에서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 더 까다롭고 어려운 리모델링의 작업을 하면서 설 자리를 만들고 갈 길을 열어야 할 입장이다. 예술위원회는 현재 그 두 겹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로드맵은 발족 초부터 착수한 예술위원회 비전 설정과 미션 구성 작업을 2월말까지 완결하고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를 3월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비전과 미션 정립 및 사업 전략과 그 수행 방법에 대한 고찰은 예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원론적인 규정으로부터 한국 사회에서의 예술 문화의 정황과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까지, 요컨대 문화 예술에 대한 모든 소견의 정립을 요청한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2007년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2006년 5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위원회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책 의지를 담은 기획과 사업이 될 것이다. 2006년의 정책은 그러므로 새로운 우리의 정책 수립을 위한 모색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정책들의 실체는 진과 그리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더라도 이 변화가 품은 함의는 의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환기해두고 싶다. 